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VI.

마지막 때 일어날 리더십은 기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다.

1. 중보자들은 나팔을 부는 자들이다.

[요엘 2:1]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요엘 2:11]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디어 낼까?

(1) 주님의 날

성경은 주님의 날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진 시간표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이야기 한다. 하이라이트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재림 때를 말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날'을 모른다면 잘못된 신앙이다.

- 주님의 날은 분명히 존재한다.
- 주님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 (놀랍고 무서운 날) : 주님의 시간이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양쪽 바퀴와 같다.
- 주님의 날은 분명하다.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다.
- 주님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정점에 이른다는 것이다.
- 마지막 때는 큰 부흥과 심판이 함께 온다.

(2) 성도의 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하나'이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만 갑자기 다가올 주님의 날에 항상 대비해 있으라는 것이다. 즉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말한다. 날마다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성도의 자세를 강조한다.

(3) 나팔이 불려 질 때

주님의 날이 임박할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엘서 말씀을 보니 '나팔'이 불려진다.

* **나팔** : 나팔은 하나님의 시간을 알리는 싸인, 즉 '메세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았다.

(4)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안에 바로 반응을 해야한다. 절대절명의 메시지가기 때문이다.

(5) 흠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불렸다.

[이사야 27:13]

그 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앗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나팔의 구체적인 기능은 흠어진 마음을 모으는 일이다. 'get your attention to GOD'

(6) 나팔은 **흩어졌던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알아야 한다 - '멈춤 (사뱃)' : 멈추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2. '심판'앞에서 선 중보자

(1) 큰 부흥의 날의 나팔은 모두에게 기쁨이다.

중보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안에 있는 사랑의 속성을 무엇보다 깊이 알아야 한다. 중보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게 경작되어 있어야 한다. 누가 마지막 때, 즉 주의 날이 다가 올 때 중보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는가? 어두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마음을 경작한 자를 말한다.

(2) 심판의 날

문제는 심판의 날이다. 심판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정의와 공의의 속성에 비추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심판의 대상에게는 두려운 날이 된다.

(3) 멈추거나 느려질 수 있는 심판의 날

[요엘 2:12-14]

- 12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 13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 14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주님의 임박한 날이 선포 되어질 때 나팔이 불려진다고 말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 된 것이다. 준비기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나팔을 불었던 요엘 선지자였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언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한다.

아무리 심판이 언도 되었다 해도 하나님은 '심판'을 더디 하시고, '심판'을 멈추시며, 오히려 돌이키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마지막 주님의 날이 임박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람이 일어나야 한다. 바로 '중보자'들이다.

(4) 중보자의 자리

마지막 때 세워질 리더십은 '공동체와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이다.

* 신명기에서 보여지는 모세의 리더십 (9장)

[신명기 9:26-29]

- 26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 27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 28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끌어 내지 않으셨을 때에 우리가 살던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 하거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 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 29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5) 모세를 통해 보여진 중보하는 리더의 자세

*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깊이 아는 자 (26, 29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다.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분명히 기억한다. 그리고 마음에 호소한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중보의 마음이 있는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마음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는 지도자이다. 이 한 사람의 마음이 심판으로 경직된 모든 '영적공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변호 하는 자 (28절)

하나님은 자신이 한 번 선포하신 말씀을 스스로 취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자체가 질서이자 법이다. 질서와 법이 흔들릴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질서와 법은 합당한 '근거' 위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미 언도된 심판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릴 수 있는 올바른 '변호인'이 필요하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무작정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드리며 합당한 변호를 했다. 이와같은 변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다.

중보하는 리더란, 하나님의 속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심판의 때에 모세처럼 중보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는 모세와 같은 변호인들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돌릴 수 있다.

(6)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중보자

모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선포한다. 그들은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 결국 그들은 심판받을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심판에 가려진 하나님의 사랑을 들추어 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깊이 경작한 중보자들이 일어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심판위에 서야한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선포 할 수 있는 중보자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강력한 중보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있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알게될 것이다.

(7)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가정 / 공동체 / 한국 / 온 열방 /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중보자의 자리에 서라. 중보자들이여 일어나라!